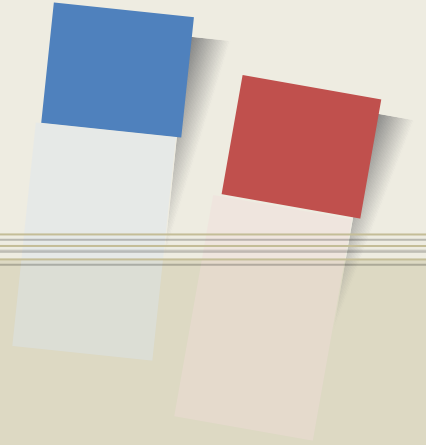


담당교수 : 배민재



해방공간 : 제주 4.3사건



1945~1954년 제주 4.3 사건 관련 주요 연표

- 1945. 8.15 해방
- 1946. 6.3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 (이른바 '정읍 발언')
- 1947.3.1 3.1 발포 사건
- 1948.3.1 미군정 남한총선거 실시 발표
4.3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
- 1948.8.15 대한민국정부 수립
10.20 여수.순천반란사건(27일 진압)
- 1950.6.25 한국전쟁
- 1952.1 휴전
- 1954.9.21 한라산 금족구역 해제

제주와 4.3

- 현재 제주도 내의 4.3 관련 유적지 596곳
- 4.3 평화공원, 추모비&위령비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자연촌락과 산지의 굴, 폭포 등과 같은 자연 지형
- 해당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에 걸쳐 전개
- 각 정치 집단이 대부분 학살에 가담하거나 방관, 조장 → 어느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x
- 민간인의 희생이 3.1운동보다 많음 → 제주 인구의 대략 10% 감소. 희생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, 현재까지도 유해 발굴 작업 진행
- 제주도민은 해방 이전,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의 군사시설 구축 작업에 동원
- 해방 이후에는 흉년 지속
- 해방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의 극단화 된 단면이 노출된 사건





제주 4·3 평화공원





제주 4.3 사건의 배경

- 해방공간: 1945년~1948년
 -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 대한 논의와 기대
- 미국·소련의 신탁통치와 냉전
 - 상상력의 폭 제한, 선택의 폭 X
- 좌우익의 대립 구도에서 3.1절 기념행사가 갖는 의미
 - 1947년의 3.1절 기념투쟁(남로당 중앙당의 지령)

제주 4.3 사건 전개과정1



- ❑ 1947년 3.1절 기념 투쟁
 - '부산 3.1절 기념 시민대회', 발포 사건
 - 1947년 제주도 3.1절 기념행사, 발포 사건 (제주 4.3 사건을 불러일으킨 씨앗)
- > 1947년 3월 10일부터 제주도 민관 총파업 돌입
- ❑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, 남로당 제주도당의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, 경찰서 급습
- ❑ 미군정은 1948년 4월 5일 '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' 설치



남로당은 어떤 조직인가?



- ❑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, 남조선신민당, 조선인민당 등 3당 합당으로 결성
cf) 북로당(북한 조선로동당의 전신)이 경상남도 일대에 조직한 '인민혁명군'
- ❑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
- ❑ 해방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
- ❑ 1946년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→ 9월 총파업, 대구 10.1 사건
- ❑ 3당 합당을 통해 대중정당을 지향, 합법적 활동 공간 확보
- ❑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강력하게 반발, 급진화(극좌와 극우의 대립 심화)
→ 테러, 무장폭동, 게릴라전 등 감행



서북청년단은 어떤 조직인가?

- ❑ 일명 서청(西靑), 우익청년단
- ❑ 1946년에 서울에서 결성, 이북에서 월남해 남한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활용해 좌익 공격에 앞장서도록 함.
- ❑ 4.3 사건과 서북청년단 - 1947년 3.1사건 이후 제주도 파업사태에 투입, 남로당이 봉기를 결심하게 되는 한 원인으로. 또한 본격적인 초토화작전이 진행되면서 경찰과 국방경비대 측의 요청으로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대거 경찰과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토벌작전에 종사.



제주 4.3 사건 전개과정₂

-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 실시
→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
-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
-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 설치
-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(선무작전 병행)
- 1949년 5월 10일 제주도 재선거 실시
-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
→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 예비 검속



4.3사건의 기억

- ❑ official history :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폭동
→ 언급이나 논의의 대상 X
- ❑ 이후 약 50년간 4.3사건에 대한 논의가 억압되었음
ex) 백조일손지묘(百祖一孫之墓) 해체
- ❑ 제주의 기억 : 공간적 제한성과 고립성
→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로컬 기억
- ❑ 개인 기억 < 가족 기억..... < 로컬 기억 < 국가 기억



4.3사건의 희생자는 누구인가?

- ❑ 1. 무장대(제주도민&남로당) 소속 희생자
- ❑ 2. 토벌대(군경, 서북청년단 등) 소속 희생자
- ❑ 3. 무장대의 습격으로 희생된 민간인
- ❑ 4. 토벌대의 처형으로 희생된 민간인

현기영, <순이 삼촌>(창작과 비평사, 1978)

- ❑ 문학에서 가장 먼저 4.3사건을 표면화
- ❑ 서술자('나')가 친척 아주머니 '순이 삼촌'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
- ❑ 등장인물들의 회상과 증언을 통해 제주도민의 경험을 드러냄
→ 양민학살, 반공 이데올로기의 폭력성



영화 <지슬>

- 네 개의 소제목 - 신위, 신묘, 음복, 소지(제사의 구성)
- 1948년 제주를 배경으로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초점
 - 무장 군인을 피해 60일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마을 사람들
 - 해안선에서 5km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과 토벌대

* 우리가 영화 <지슬>에서 양민과 군인 외에 무장대(남로당의 편에 선)의 모습을 목격할 수 없는 이유?

→ 4.3 희생자들을 순진하고 무지한 선량한 존재들로 간주함으로써 윤리를 당위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강조

